아버지의 거처

(요14:15~24)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거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포함시키고 또 성령님을 포함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머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시게 된다는 얘기인데, 14장 앞부분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 아버지의 집 안에 내가 거할 장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나의 기업과 내 몫의 분깃이 있습니다.

근데 거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나를 거처 삼아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내 분깃과 내 몫이 있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 천국을 나의 몫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현실화해서 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천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믿고 사는 것인데, 내 마음이 그렇게 천국에 가 있으면, 빈 깡통 같은 내 몸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거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거처 삼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빠져나간 뒤에 하나님은 주인이 없는 빈 집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두드러진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5절과 21절과 23절과 24절에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한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 시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4번을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뭡니까? 바로 앞 장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삼으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거처의 이야기.
내가 거할 하늘나라의 거처와 하나님아버지께서 거하실 이 땅 위의 거처, 이 두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아버지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는 다른 '거처'가.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집과 거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그 아버지의 집 안에 내가 거할 장소, 내 방이 있습니다.
내가 거할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거처를 직접 5감관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지금 눈으로 뵙고 있는 하나님과 처하고 있는 천국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마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5감관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확인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안에서 천국을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33살 된 노처녀가 정말 멋진 남자와, 모든 친구들이 볼 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의 멋진 남자와 결혼식을 하도록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6개월 뒤에 결혼식이지마는, 지금 이 아가씨가 6개월 뒤 결혼식을 향해서 미래의 시점을 향해 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로부터 지금을 살고 있기도 한 겁니다.
마음이 이미 결혼식 날에 가 있으므로, 거기서 느끼는 마음이 그 결혼식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부터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요 열매라는 겁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거, 그 노처녀처럼 위로부터 사는 겁니다.
지금을 위로부터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 천국의 거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불러 주셨다는 그 사실을 5감관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내 거처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비어있는 마음으로 지은 바 된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들어와 채우시고, 천국이 들어와 채우시고, 하늘의 나의 분깃, 내 몫이 내게 할당된 몫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지 않고, 기쁨을 원하지 않고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위에 거처가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결실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거처를 삼고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셔서 내려오시면, 이곳은 하나님아버지의 이 세상에서의 직장이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하늘 위에 있는 곳이고, 이 나를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거처로 삼습니까? 왜 하늘의 거처를, 믿음 안에서 지금 현실화시켜서 모든 마음의 만족을 다 이루고 있는 그 사람으로 삼으십니까?
안 그랬다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고 활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자기 것으로 착복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하늘에 내 이름이 등록된,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걸려 있는 나의 처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아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실 수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나의 거처를 믿음 안에서 지금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이 거처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와 연관 지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나와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 마음이 하늘에 거처에 다 가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거처를 현실화해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아! 나는 성공했어! 나는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었어! 이 세상의 그 누구의 성취와 그 어떤 사람의 성공, 인간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성취와 성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나는 이미 갖고 있어!'
진짜로 하나님아버지께 있는 나의 거처를 확인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로 삼으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충족되면 좋다 이거에요.
'뭐냐? 너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빈 깡통으로 있겠느냐? 너의 인격이라는 건 다 하늘나라에 가있고 이제 여기는 빈 깡통만 남아 있어서, 전세 내 놓고 월세 내 놓듯이, 너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로만 내놓겠느냐? 너도 인격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를 거처삼아 하시는 사역에 참여 하려무나!' 하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 천국에 내 몫이 있다고 하는 것에 덧붙여서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참여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럼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인가? 슈바이처처럼 돼야 되나? 마더 테레사처럼 돼야 되나.
마더 테레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슈바이처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늘의 처소를 믿음 안에서 현실화 시킨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은 사명의 순간입니다.
만나는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원한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내 입장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라야, 오직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거처를 내가 믿음 안에서 현실화시킨 다음에는, 제일 좋은 것은 하늘로 가버리는 겁니다, 몸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 두시는 이유는,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뭔가 활동하시려는 게 있고, 내가 마음을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으로 조준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 이게 있으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모습, 결국 사랑입니다, 깊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신 거,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라도,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러셨겠어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창기와 죄인들을 끌어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채찍으로 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형태를 고집하며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완전한 자유더라고요.
완전한 자유이고 정말 이런 평강과 기쁨의 근거가 이렇게 코앞에 와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겨울에 가스 값을 아끼느라고 아주 추운 날 아침에 1시간 정도 보일러를 때고는 안 땝니다.
그래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있어요. 가디건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가디건을 입고 있다가 밤에 잘 때 그걸 벗어 놓았다가 아침에 말씀 전하고 집에 가서 다시 그 가디건을 입으려고 하면, 100번이면 100번 다 이 가디건의 팔 부분이 가디건 품 안쪽으로 빨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손이 집어넣어지질 않습니다.
이 가디건 품 안에 빨려 들어와 있던 부분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가디건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밖에서 돌아와서 막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양복을 벗을 때도 급하면 이 팔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릴 겉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팔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팔이 쭉 뻗고 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거처로서 입을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내 팔이, 내 마음의 팔이 계속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 눈에 내가 예쁘게 보일까, 안 예쁘게 보일까 신경 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장삼아 거처삼아 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해 나가실 수가 없

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팔은 완전히 바깥으로 다 뻗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거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승천해 계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밝혀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하늘의 거처를 믿음 안에서 지금, 현실로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자꾸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의 거처를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품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내가 하늘로 만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을 내미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을 내 거점으로 삼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된 상태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밖에서 인도하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거처가 다 그 의미를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에 만족을 얻고, 내 마음이 성취감으로 충만하고 싶은, 내 인생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에 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뭐 이 세상에서 재벌그룹의 회장자리, 대통령자리보다도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못보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걸 갖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천국의 현실이 나의 이 땅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늘의 거처를 나의 현실로 느끼게끔 해주는 포인트가 되고, 또 이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늘로 만족하므로 이 땅에 대해서 전혀 만족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바깥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뭐 안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팔을 쑥-쑥- 뻗으시면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름 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나의 공생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선 십자가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찾는 영역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나의 거처가 있다는 사실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하지 않고, 오직 나를 만나는 사람만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